

장애인의 장애수용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권오형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시간강사

The Influence of Disability Acceptance for People of Disability on the Life Satisfaction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Oh-Hyoung Kweon

Lecturer, Division of Social Welfare, Hanse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수용 및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장애인의 생활 만족도 증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2017년 장애인 고용패널 2차 웨이브 2차 조사 대상자 4,400명중 1,505명이다. SPSS 23.0에 의한 회귀분석, 기술 통계 및 상관분석이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장애수용은 자기효능감과 생활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자기효능감은 생활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장애수용과 생활 만족도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 치료 및 심리인지 통합 프로그램의 운영과 장애인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의 발굴 및 참여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하였다.

주제어 : 생활 만족도, 장애수용, 자기효능감, 장애인, 융합

Abstract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improve the life satisfaction of people of disability through disability acceptance and self-efficacy. 1,505 out of 4,400 of Pena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2nd Wave were applied for the study. Regression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by SPSS 23.0 were applied. The study show that the disability acceptance had a positive effect on self-efficacy and life satisfaction. Self-efficacy influenced positive effect to life satisfaction and played a mediating role between disability acceptance and life satisfaction. Base on the result, this study made suggestions for necessity to operate rehabilitation and Psychological cognition integral programs and to find and attend the various programs for people of disability.

Key Words: Life satisfaction, Disability acceptance, Self-efficacy, People of disability, Convergence

1. 서론

삶의 질은 생활수준이나 행복의 정도에 대한 접근으로 의 식주를 비롯한 생존의 문제를 극복한 현대 산업사회에 이르 러 보다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21세에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삶의 지표들은 증 가 했으나 거기에 걸맞게 우리의 행복도도 증가 했는지에 대 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든다. 더 나아가 장애인의 삶의 질

문제는 국가 정책을 비롯하여 사회 환경의 변화와 사회 구성 원들의 인식 변화에 힘입어 과거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화를 겪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의 이면에는 행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장애인들이 많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도시화, 산업화를 거치면서 사회구조는 빠르게 변모했으나 의식의 수준이나 법률, 제도 등의 정비는 이에 부응되지 못해 또 다른 소외 계층을 양산하게 되어 그 문제는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 되었다.

*Corresponding Author : Oh-Hyoung Kweon(aag78@naver.com)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삶의 질 문제에 대해 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장애인의 생활 만족도와 관련된 연구는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별 연구와 비장애인과의 비교 연구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이를 전자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경제활동 요인과 관련하여 고용상태 및 취업여부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1,2]. 직업 유무나 고용의 안정성은 경제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 인간의 사회생활에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그 특성상 직업의 취득이나 취업 이후 고용상의 지위에서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더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성별, 학력, 나이, 결혼 상태, 소득, 건강 및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역시 장애인의 생활 만족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1,3,4]. 성별, 나이 및 혼인 상태 등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유무와 정도는 연구 방향에 따라 그 결과가 다소 상반되는 경향이 있지만 소득, 교육, 건강, 장애정도 및 사회경제적 지위는 생활 만족도에 비교적 일관되게 뚜렷한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가 유지되고 있다. 장애인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 중에서 주관적 지표와 관련하여 자존감, 자기효능감, 장애수용 및 사회활동 등이 역시 중요하게 연구되고 있다[1,5-7]. 이러한 주관적 지표는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관련되며 장애의 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의지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있어 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의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변수는 실로 다양하다. 이는 생활 만족도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과 연계되어 있으며 단순한 생활 만족도 그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장애수용은 장애 이후 자신의 변화된 상태를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스스로 주체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이다[8]. 이는 자신에 대한 주관적 가치 판단이며 객관적 자원에 대한 주관적 체감에 의해 판단되어지는 생활만족도와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장애수용은 갑작스러운 장애로 인한 상실의 문제를 어떻게 현실적 문제로 이해하느냐의 매우 주관적 개념이다. 이는 개인의 투지와 관련되며 장애로부터 회복 과정의 진행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장애수용의 연구 동향은 장애수용과 영향관계에 있는 변수에 대한 연구와 장애수용의 과정을 다룬 연구로 크

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장애수용은 매우 주관적 요소이지만 그래도 다양한 외부환경 변수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용, 소득, 교육, 성별, 연령, 결혼 상태 및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인구 사회학적 변수가 장애수용에 영향을 미친다[9-11]. 특히 소득 또는 이와 관련된 변수인 고용, 학력 및 사회경제적 지위 등이 기타 인구 사회학적 변수들 보다 영향력이 더 뚜렷한 경향이 있다. 이는 장애로 인한 상실의 문제가 경제적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제관련 변수의 영향력이 기타 변수의 영향력 보다 큰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장애차별의 경험은 자기효능감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11]. 장애수용은 자기효능감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12]. 장애차별은 직장이나 학교 등 다양한 사회집단에서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이를 경험하거나 사회적 배려로부터 소외감을 경험한 장애인은 자기효능감이 낮을 수 있으나 이때 높은 장애수용은 낮은 자기효능감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장애수용이 장애인에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의 경험이나 낮은 자기효능감으로부터 발생 할 수 있는 스트레스 문제를 완화시켜 준다[13]. 또한 장애 차별에 대한 경험이 장애인의 생활 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장애수용은 생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8, 13]. 차별을 경험한 장애인은 생활 만족도가 낮아지게 되는데 이때 장애로 인한 상실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변화에 대해 인정을 하고 극복해 나가는 장애수용 태도는 생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장애수용은 생활 만족도에 부정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정(+)적 조절역할을 하여 생활 만족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생활 만족도를 논함에 있어 지금 까지 살펴본 여러 가지 변인 중에서 주관적 지표의 핵심 변수인 자기효능감은 스스로 자신의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신념으로 정의되며, 생활 만족도 및 직무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이 여러 경로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장애인의 경우 장애 및 변화된 외부 환경에 대한 적응도가 높고, 사회 활동이나 여가 활동에도 보다 적극적이다[14,15] 이와 같이 자기효능감은 갑작스럽게 변화된 환경에 새롭게 적응을 해야 하는 장애인에게 더욱 필요한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및 청각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각각 비 장애 집단과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비교한 결과 그들의 자기효능감은 낮았다[12,16].

장애수용 및 자기효능감 변수는 주관적 지표 변수로 기타 외부 환경 요인인 경제적 변수, 인구 사회학적 변수 등과 구별되는 점은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에 대한 주관적인 반응으로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관련이 깊다는 것이다. 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을 주체적 위치에 두고 현재 자신이 지닌 능력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장애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다. 이러한 태도가 바로 긍정적 삶의 자세이며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근간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두 요인을 통하여 장애인의 생활만족도 향상 방안을 고민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를 정리해 보면, 장애수용이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 자기효능감이 경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이 경로를 검증하여 장애수용이 자기효능감과 생활 만족도를 향상하는 요인임을 밝힘과 동시에, 장애수용과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효과적인 생활 만족도 증진 방안을 모색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에서 다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장애수용이 높으면 생활 만족도가 높을 것인가?

[연구문제 2] 장애수용이 높으면 자기효능감이 높을 것인가?

[연구문제 3]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생활 만족도가 높을 것인가?

[연구문제 4] 자기효능은 장애수용과 생활 만족도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인가?

2. 연구 방법

2.1 연구 내용

본 연구에는 2017년도 장애인 고용 패널조사 2차 웨이브 (Pena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2nd Wave) 2차 조사 자료가 활용되었다. 본 자료의 표본은 한국의 15~65세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1단계 집락추출방법에 의해 추출되었다. 이를 연령,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층화추출하였다. 전국을 단위로 한 표본 수는 4,400명이다[17].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장애수용, 생활 만족도 및 자기효능감에 응답한 1,505명이다.

자료 분석에는 SPSS 23.0에 의한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이 활용되었다. 또한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다중 회기분

석과 Bootstrap이 사용되었다.

2.2 변수 별 척도

2.2.1 장애수용

장애수용 척도는 장애인 고용 패널 조사에서 장애수용 지표로 사용된 12문항이 활용되었다. 이 지표는 Kaiser, Wingate, Freema & Chandler(1987)의 Disability Acceptance Scale(DAS)이 사용되었다[18]. 이중 장애극복 관련 3개 문항은 백영승 외(2001)에 의해 개발되고 강용주 외(2008)에 의해 타당도가 검증되었다[19, 20]. 각 문항은 5점 척도이며, 일부 문항은 역 코딩 처리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수용의 정도가 높다. Cronbach's alpha 값은 .760이다.

2.2.2 생활 만족도

생활 만족도는 장애와 고용패널에서 자체 개발한 일상생활 만족도 지표가 사용되었다. 척도의 9개 문항 중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묻는 1개 문항을 제외한 8개 문항이 사용되었다. 이는 5점 리커트 척도이다.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으며, Cronbach's alpha 값은 .865이다.

2.2.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Schwarzer(1992)에 의해 개발된 척도가 사용되었다[21]. 이는 10개 문항으로 구성된 4점 리커트 척도이다. Cronbach's alpha 값은 .865이다.

3. 연구결과

3.1 연구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남성의 비율은 69.8%로 30.2%를 차지한 여성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 결혼 및 동거의 비율은 44.8%로 미혼 40.8%와 미미한 차이를 보이며, 이혼, 사별 및 별거로 분류된 기타 14.5% 보다 세 배가 넘었다. 85.8%를 차지한 경증 장애인의 비율은 중증 장애인의 비율 14.2%보다 6배 이상 높았다. 교육은 고졸의 비율이 45.8%로 중졸이하의 비율 21.3% 및 대졸 이상의 비율 33.0%보다 높아 중앙으로 쏠리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별 인구 구성은 40대 미만 23.5%, 40대 36.1%, 50대 24.9% 및 60대 15.4%로 40대 및 50대의 인구 구성비가 가장 높았다. 가구 연간 소득은 3,500만 원 미만이 50%

이상율, 1,500만 원 이하의 비율이 13.2%를 차지하여 대체로 낮았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17.5%만 높다고 응답하여 매우 낮은 분포를 보였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groups

variables	groups	N	%
gender	F	454	30.2
	M	1,051	69.8
disability	minor	1,291	85.8
	severe	214	14.2
marrage	unmarried	614	40.8
	married/live together	674	44.8
	others	218	14.5
education	↓ middle school	320	21.3
	high school	689	45.8
	↑ university	496	33.0
age	15~39	354	23.5
	40~49	543	36.1
	50~59	375	24.9
	60~65	233	15.4
household annual income/(ten thousand)	↓ 1,500	198	13.2
	1,501~2,500	266	17.7
	2,501~3,500	279	18.5
	3,501~5,000	404	26.7
	↑ 5,000	346	22.9
socioeconomic statues	low	359	24.6
	middle	842	57.8
	high	256	17.5

Others of marriage is divorce, bereavement and separation.

3.2 변수 별 기술 통계량

변수 별 기술 통계량은 Table 2와 같다. 장애수용, 생활 만족도 및 자기효능감의 평균값은 각각 3.299(SD=.476), 3.622(SD=.576) 및 2.943(SD=.749)로 중앙값 2.5 및 2.0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왜도 및 첨도는 장애수용 (-.030/.303), 생활 만족도(-.250/.188) 및 자기효능감 (-.684/2.051)중에서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은 절대 값을 보였다. 제 변수에서 왜도는 3 미만, 첨도는 7 미만으로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가장 할 수 있었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variables	N	Min	Max	Mean	SD	Skewness	Kurtosis
acceptance disability	1,505	1.67	5.00	3.299	.476	-.030	.303
life satisfaction	1,505	1.88	5.00	3.622	.576	-.250	.188
self-efficacy	1,505	1.00	4.00	2.943	.749	-.684	2.051

3.3 상관관계

각 변수 간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장애수용은 생활 만족도($r=.446, p<.001$) 및 자기효능감($r=.512, p<.001$)과 유의미 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자기효능감은 생활 만족도($r=.416, p<.001$)와 유의미 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 변수 별 단순 상관관계가 'r=.800' 이상의 변수가 없어 다중공선성은 발생하지 않았다.

Table 3. Correlation

variables	1	2	3
1	1		
2	.446**	1	
3	.512**	.416**	1

**p <.01, 1. acceptance disability, 2. life satisfaction, 3. self-efficacy.

3.4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장애수용과 생활 만족도 사이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에 위하여 Baron & Kenny(1986)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22]. 단계 1에서 장애수용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beta=.512, t=23.125, p<.000$)을, 단계 2에서 장애수용은 생활 만족도에 정(+)의 영향($\beta=.446, t=19.335, p<.000$)을 미쳤다. 따라서 [연구문제 2]와 [연구문제 1]이 검증 되었다. 단계 3에서 장애수용이 생활 만족도에 정(+)의 영향($\beta=.316, t=12.124, p<.000$)을, 자기효능감은 생활 만족도에 정(+)의 영향($\beta=.254, t=9.744, p<.000$)을 미쳤다. 단계 3에서 장애수용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beta=.316, t=12.124, p<.000$)은 단계 2에서의 그 영향력($\beta=.446, t=19.335, p<.000$)보다 감소하였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장애수용과 생활 만족도 사이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이다. 따라서 [연구문제 3]과 [연구문제 4]가 검증되었다.

단계 1, 단계 2 및 단계 3에서 모델의 유의 확률 값($F=534.788, p<.000, F=373.829, p<.000, F=246.075, p<.000$)과 단계별 설명력($R^2=.262, R^2=.199, R^2=.246$)은 회귀분석 모델로 적합했다. 단계 별 Durbin-Watson 값(1.852, 1.743, 1.724)은 2.0에 수렴하여 회귀분석이 가능하며, 각 단계에서 분산 팽창계수(VIF=1.000, 1.000, 1.355)는 3.3을 초과하지 않아 다중공선성은 발생되지 않았다.

Table 4. Mediation effect of self-efficacy

IN.Variables	DE.variables	β	t	F	R ² (adj R ²)	VIF	Durbin-Watson
acceptance disability	self-efficacy	.512	23.125***	534.788***	.262 (.262)	1.000	1.852
acceptance disability	life satisfaction	.446	19.335***	373.829***	.199 (.199)	1.000	1.743
acceptance disability	life satisfaction	.316	12.124***	246.075***	.247 (.246)	1.356	1.724
self-efficacy	life satisfaction	.254	9.744***				

***p < .000

3.5 Bootstrap을 통한 매개효과 검증

장애수용과 생활 만족도 사이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Preacher & Hayes(2012)의 Bootstrap을 적용하여 검증하였다[23].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이 때 간접효과 크기는 .1521이었다. 매개효과 계수 값은 95% 신뢰구간에서 최소값(.1191)과 최대값(.1854)은 모두 0보다 크기 때문에 간접효과가 정(+)적으로 유의했다. 즉, 자기효능감은 장애수용과 생활 만족도 사이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했다.

Table 5. Bootstrap of self-efficacy

variable	B	Boot S.E	95% of confidence interval	
			Boot LLCI	Boot ULCI
self-efficacy	.1521	.0170	.1191	.1854

4. 결론

본 연구는 장애인의 장애수용과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생활 만족도 증진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위하여 장애수용과 생활 만족도 사이에서 자기효능감이 갖는 경로역할 여부와 장애수용과 자기효능감이 생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분석 하였다. 그 결과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수용이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았다. 이 결과는 장애인 및 노령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장애수용은 주관적 건강 상태 및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임을 밝힌 연구[24], 차별경험에 의해 낮아진 중증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는 장애수용에 의해 회복될 수 있다는 연구[10], 근로 장애인의 장애수용은 생활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직무만족을 매개하여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8], 등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 해 보면 장애수용은 생활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생활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다양한 요인들 즉, 건강요인, 경제적 요인 및 직무 만족도 등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쳐 생활 만족도에 관여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의 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장애수용이 전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장애수용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장애수용은 대인관계와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12], 후천적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장애수용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11]와 같은 결과이다. 이는 장애수용과 자기효능감과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연구들이며 이들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장애수용의 증가는 자기효능감의 증가를 가져오고 자기효능감의 증가 역시 장애수용의 향상을 꾀한다.

셋째, 자기효능감이 생활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장애인의 대인관계와 생활 만족도 사이의 경로 분석을 하면서 자기효능감이 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5,16], 산재 근로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 하면서 자기효능감이 자아존중감과 함께 산재근로자들의 삶의 질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지목한 연구[7]와 그 견해를 같이 했다.

넷째, 자기효능감은 장애수용과 생활 만족도 사이에서 부분 매개역할을 했다. 이 결과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수용을 통하여 생활 만족도 향상을 꾀하기 위해서는 장애수용의 결과 변수이며 생활 만족도의 요인 변수인 자기효능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장애수용과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장애인의 생활 만족도 증진 방안을 연구 해왔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수용과 자기효능감은 주관적 심리 변수로 개인의 의지와 판단에 따른 내부요인과 관련이 깊다. 장애인의 장애수용 및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해서는 거시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개별 장애인을 위한 미시적 접근으로 재활치료 프로그램 및 심리, 인지적 통합 프로그램의 지원 및 운영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장애수용은 발생의 시기, 생애 주기별,

상실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생활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프로그램의 성격상 일시적 운영으로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이 또한 필요하다[25].

둘째, 개별 장애인에게는 장애극복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발굴 및 참여의 노력이 요구된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다양한 기관을 통하여 제공 되더라도 장애인 스스로 참여의 노력이 없으면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생활 만족도를 주관적 변수인 장애수용과 자기효능감과 함께 살펴보면서 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거시적 측면과는 별도로 개별적 접근의 필요성을 유도한 연구의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을 지닌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생활 만족도를 2017년도 장애와 고용패널 자료 2차 웨이브 2차년도 데이터를 횡단으로 분석하여 진행했다. 횡단 자료가 지니는 자료의 특성적 한계와 생활 만족도는 응답자의 주관적 의견의 진술을 토대로 분석하기 때문에 조사 시점 마다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나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추후 2차년도 데이터와 함께 추가 자료의 축적이 이루어지면 종단 연구 역시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애수용 및 생활 만족도 변수는 경제적 요인, 가족, 및 스트레스나 우울 등의 다양한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이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추후 보다 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생활 만족도를 연구 한다면 보다 진전된 연구 결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O. H. Cwon. (2015). The Influence of Disabled Paid Workers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es on Daily Life Satisfaction ; the Main Focus on Analyzing Mediation Effect of Self Esteem and Moderating Effect of Standard and Non-standard Workers. *Disability & Employment*, 25(4), 297-319.
- [2] Y. U. Cho & K. H. Cho. (2014). The Study of Quality of Life between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s Economic Capability: The Mediating Effect of Mental Health Factor via Structural Equation Model Multi-Group Analysi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34(2), 276-309.
- [3] S. H. Kim, J. K. Park & E. R. Kim. (2016).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Participation and the Subjective Quality of Life of the Individuals with Physical Disabilities. *Disability & Employment*, 26(4), 173-195.
- [4] J. Y. Song. (2012). A Longitudinal Study of Effect of Employment Status Change on Life Satisfaction of Mid-aged Persons with Disabilities : Based on Comparison of Gender and Disability State.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22(3), 23-47.
- [5] O. H. Kweon & J. W. Moon. (2018). The influence of Interpersonal rel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on daily life satisfaction: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6), 327-333.
- [6] S. B. Shin. (2017).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Quality of Lif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8(4), 1043-1068.
- [7] S. M. Kim & E. H. Kim. (2015).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among Injured Workers : Focusing on the Psychosocial Factors.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26(4), 389-411.
- [8] J. I. Kim. (2013). The influence of Disability Acceptance, Discrimination, Socioeconomic Status of workers with disabilities on job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Disability & Employment*, 23(4), 59-84.
- [9] S. K. Park. (2006).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acceptance of disability of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y in Korea. *The Korean Social Security Association*, 22(1), 265-286.
- [10] H. S. Park, M. J. Son & J. Y. Song. (2013). The Influence of Discrimination on Life Satisfaction -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Disability Acceptance and moder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Support. *Disability & Employment*, 23(1), 55-76.
- [11] H. R. Yang, Y. J. Ko, Y. M. Park & H. R. Lee. (2017). The Effect of Discrimination and Self-efficacy on People with Acquired Physical Disability's Acceptance of Disability - Focusing on Conditional Process Modeling through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Disability & Employment*, 27(3), 89-112.
- [12] U. B. Lee, S. M. Shin, D. S. Lee, U. H. Cho & H. J. Ju. (2018). The Effects of Disability Acceptance on Self-efficacy of People with Hearing Disability :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7(4), 301-324.
- [13] H. S. Park & H. T. Yang. (2013). The influence on the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with disability of discrimination experiences – centered on the effect parameters of the disability acceptance. *Disability & Employment*, 23(3), 153–174.

[14] D. Y. Kim. (2011). *Effect of Community Program Environment on the Recovery of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y ; a study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Hannam university.

[15] Y. H. Nam, I. S. Chae, S. J. Lee, D. H. Chun & Y. S. Kim. (2011). A Study of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of those with Disability Owing to Spinal cord Injury: Focusing on Mediatory Effects of Self-efficacy. *Journal of Social Science*, 37(2), 1–22.

[16] J. Y. Song. (2016). The effect of Self- esteem and Self-efficacy on Life satisfaction of workers that have returned to their original work place after industrial medical care;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job satisfaction. *Disability & Employment*, 26(3), 65–94.

[17] J. J. Lee. (2017). *Pe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2nd Wave*. Disability & Employment.

[18] S. B. Kaiser, S. B. Wingate, C. M. Freeman & J. L. Chandler. (1987). Acceptance of physical disability and attitudes toward personal appearance. *Rehabilitation Psychology*, 32(1), 51.

[19] Y. S. Back, S. H. Kim, M. Yu & C. S. Kim. (2001). *KEPAD self concept test for the disabled*. Seoul. Disability & Employment.

[20] Y. J. Kang, J. K. Park & I. S. Gu. (2008). Validation of the Self Concept and Self Acceptance Test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Disability & Employment*, 5(1), 1–129.

[21] M. Jerusalem & R. Schwarzer. (1992). *Self-efficacy as a resource factor in stress appraisal processes*. In R. Schwarzer (Ed.), *Self-efficacy: Thought control of action*(pp. 195–213). Washington, D.C.: Hemisphere Publishing Corporation.

[22] R. M. Baron &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 15(6), 1173–1182.

[23] A. F. Hayes & K. J. Preacher. (2012). *Statistical mediation analysis with a multicategorical independent variable*.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24] M. S. Ko. (2015). The Effects of Disability Acceptance on Self-Rated Health Status and Life Satisfaction in Elderly with Disabilities. *Health & Welfare*, 17, 21–40.

[25] W. S. Kan, S. J. JO & J. H. Cho. (2012). The relationship of acceptance of disabilities and life satisfaction to the onset of disabilities among individuals with physical disabilities.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19(1), 149–174.

권 오 형(Oh-Hyoung Kweon)

[정회원]



- 1988년 2월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 학사
- 2012년 2월 : 중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
- 2017년 2월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시간강사
- 관심분야 : 산업복지, 아동복지, 사회복지정책
- E-Mail : aag78@naver.com